

지식 지형의 변화에 따른 조선 시대 문체 인식의 태도 연구*

- 문체 점변을 중심으로 -

김경남**

|| 차례 ||

- I. 서론
- II. 세계관과 글의 관계
- III. 지식 지형과 문체 점변(文體漸變)
- IV. 결론

【 】

이 글은 유희(劉勰)의 『문심조룡』과 조선왕조실록의 ‘문체(文體)’ 관련 논쟁을 중심으로, 지식 지형의 변화가 글쓰기에 미친 영향을 규명하는 데 목표를 둔 글이다. 문체란 문장의 체재(體裁)를 의미하는 말로, 근대의 작문 이론이 등장하기 전부터 널리 쓰였던 용어이다.

동양의 전통적인 문체는 유희의 『문심조룡』에서 언급한 것처럼 경사서(經史書)의 체재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체는 술이부작(述而不作)의 전통이 강한 중국에서 진실하고 도덕적인 글이 갖추어야 할 특징으로 인식되어 왔는데, 『문심조룡』에서는 이를 ‘원도(原道)’라고 표현한다. 이 책의 ‘종경 제3(宗經 第三)’에서는 전통적인 문체가 경사서에서 비롯되었음을 밝히고, 각각의 문체가 갖추어야 할 조건을 설명하고 있다.

조선 시대의 문체 논쟁은 주로 과문(科文)을 대상으로 전개되었는데, 과문에 쓰이는 각각의 문체가 지켜야 할 조건을 따르지 않는 현상을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처럼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6A3A01079180)1)

** 단국대 일본연구소 HK연구교수

문체 논쟁이 순수한 글, 도덕적인 글이 변질되어 감을 비판하는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음은 지식 지형의 변화와 문체 논쟁이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정조 연간 서학이 만연됨에 따라 문체상의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고 있음을 비판한 논쟁을 통해, 문체가 지식 표현의 수단이며, 이에 따라 지식 지형의 변화가 문체의 변화를 유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제어 : 문체, 문심소룡, 과문(科文), 지식 지형, 문체 변화

I. 서론

문체란 문장의 체재(體裁)를 의미한다.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사이트에서 ‘문체’라는 표현을 검색하면 원문에 사용된 것만도 204회에 이르는데, ‘문체’에 대한 관심은 ‘문체론’이나 ‘문체학’이라는 학문 분야가 성립되기 이전부터 존재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질적으로 문체 문제는 ‘작법(作法)’과 ‘독법(讀法)’의 문제에 해당한다. 그런데 ‘술이부작(述而不作)’의 전통이 강한 동양에서는 작법의 기술과 관련된 문제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으므로, 문장의 체재나 내용 등 문체와 관련된 문제를 글쓰기보다 독법상의 문제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던 듯하다. 작법상의 문체론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최재학(1909)의 『실지이용작문법』(휘문관), 이각중(1911)의 『실용작문법』(유일서관) 등과 같이, 근대식 학제가 도입된 이후로 보이는데, 최재학(1909)에서는 ‘총론(總論)’에서 “文을 작코져 호는 者 | 古今書籍을 涉獵 호야 胸中에 許多材料를 儲藏 호고 又 文字의 運用과 文體의 組織을 識解 호 後에 筆을 下 호면”이라고 하여, 문체를 이해하는 것이 글쓰기의 기본임을 주장하였고, 이각중(1911)에서는 “文體는 文章의 作法上의 體裁를 云흠이니 文體는 文章의 性質을 從 호야

多少 相異호는 形式이 有호는지라.(中略) 人의 思想은 千變萬化에 其極이 無호는즉 其思想의 表現法된 文體도 從亦 千差萬別이라. 如何호는 題目에던지 必其特定호는 文體가 常有키 不能호는니 故로 必須 其思想과 題目에 相伴호는야 相應호는 者를 適宜選擇치 아니호는이 不可호는니라.”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조선 시대 작법상의 문체 논쟁이 활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식 표현의 양식으로서 문체에 대한 논의는 조선 초기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른바 ‘문체점변(文體漸變)’은 언어가 시대에 따라 변화하듯, 문체도 시대에 따라 점차 변화하는 현상을 말한다. 조선시대 문체 논쟁은 대체로 과문체(科文體)의 점변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막고자 하는 논쟁으로 귀결된다. 이러한 논쟁의 근본에는 과문(科文)에 정해진 양식이 존재하며, 그것을 변경해서는 안된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이때 정해진 양식의 준거로 남조(양나라)의 유협(劉勰)이 지은 『문심조룡(文心雕龍)』이 작용했을 것임은 이미 많은 사람의 연구가 있었는데, 배득렬(1997), 이상복(1996), 김원중(1994), 팽철호(1992), 전명용(1999) 등의 박사학위 논문뿐만 아니라, 250여 편의 학술지 논문도 등장한다. 특히 학술지 논문 가운데 박현규(2009)의 『한국에서의 문심조룡 유전 양상-신라~조선 시대를 중심으로』는 이 저서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적절히 규명하고 있으며, 서용준(2011)의 『문심조룡 송찬(頌讚) 편의 분석을 통한 유협의 송(頌)과 찬(讚)에 대한 인식 고찰』, 김민나(2004)의 『문심조룡 정위편(正緯)편 논술의 목적과 의의 고찰』 등도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문체 논쟁과 관련한 박재경(2014), 이상욱(2015), 안세현(2009), 김은미(1990), 백진우(2011), 김윤희(2010), 허방(2016), 최영화(2017), 학군봉(2011), 송주영(2014) 등의 박사학위 논문도 문체 논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연구 업적에 해당한다.

이 논문은 『문심조룡』에 나타난 한문 문체(文體)의 유형과 특징을 살펴

보고, 조선시대 문체점변에 대한 지식인의 태도를 대상으로 문체에 반영된 지식 지형 변화의 특징을 규명하는 데 목표를 둔다. 따라서 이 논문은 『문심조룡』을 대상으로 ‘세계관과 글(문체)의 관계’를 설명하고, 이를 준거하여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문체 논쟁’ 자료를 대상으로 조선시대 지식인들의 문체 인식 태도 변화를 기술하는 데 중점을 둔다.

II. 세계관과 글의 관계

1. 세계관과 글쓰기 태도

『논어』 권7의 ‘술이(述而)’의 “술이부작 신이호고 절비아노팽(述而不作 信而好古 竊比我老彭, 옛것을 전하되 지어내지 않고 믿고 옛것을 좋아하는 일을 나는 감히 노팽에 비교하고자 한다.)”라는 표현은 동양의 오랜 전통으로 굳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집주(集註)에서는 “술(述)은 옛것을 전하는 것일 뿐이며, 작(作)은 처음으로 창작하는 것”이라고 풀이하고, “그러므로 성인이 아니면 창작이 불가능하고, 술은 현자라도 가능하므로 감히 상나라 어진 대부인 노팽에 비교한다.¹⁾”라고 한 것이다.

창작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동양의 글쓰기는 경사서(經史書)에서 비롯된 문체를 고수하는 경향이 강하다. 남조(양나라) 유협(劉勰)이 저술한 『문심조룡(文心雕龍)』 ‘원도(原道)’에서는 ‘문(文)과 규범’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1) 『論語集註』卷7. 述而. 述, 傳舊而已. 作, 則創始也. 故作非聖人不能, 而述則賢者可及. 竊比, 尊之之辭. 我, 親之之辭. 老彭, 商賢大夫, 見大戴禮, 蓋信古而傳述者也.

「문과 규범」

ㄱ. 문(文)의 덕(德)은 참으로 위대한 것이다. 그것이 하늘 땅과 생성을 같이 했음은 어찌된 일인가. 하늘의 검정 빛과 땅의 노란 색이 서로 뒤섞여 땅은 네모꼴로 하늘은 둥근 모양으로 모습을 나누어 해와 달은 구슬을 이어놓은 듯 하늘에 드리워 그 모습을 드러내고 산천은 아름다운 빛을 띠고 땅의 모습을 꾸미고 있다. 이것은 천지자연의 문채(文彩)라 하는 것이다. 위로는 해와 달이 발산하는 빛을 보고, 아래로는 땅위를 덮고 있는 문채를 관찰하여 천지는 위아래로 제 자리를 정하였으므로 하늘과 땅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인간은 이 사이에 태어나 우주의 신비스러운 덕성을 그대로 갖추었으므로 천지와 더불어 삼재(三才)라 불리운다. 인간은 만물을 형성하는 오행(五行) 중에서도 정화(精華)이며 실로 천지의 마음인 것이다. 천지의 마음이 생겨나면 언어(言語)가 서게 되고, 언어가 서게 되면 문장(文章)이 모습을 밝게 드러낸다. 이것을 자연의 도리라 한다.²⁾

ㄴ. 창작자를 성인이라 하고 그것을 서술(敘述)한 자를 명철(明哲)이라 한다. 인간의 성정을 도야하는 면에서 성현(聖賢)들은 그 공이 크다. ‘공자의 문장은 가히 얻어들을 수 있다.’라고 한 것은 성인의 정이 그 문장에 나타나 있음을 말한다. 옛 성왕(聖王)들의 가르침은 옛 문헌에 기술되어 있고, 공자의 인간성은 그 격언에 충일(充溢)하고 있다. (중략) 공자는 자산(子産)을 찬미하면서 ‘언어는 사상(思想)을 완성하고, 문식(文飾)은 언어를 완성한다.’라고 했고, 널리 군자를 숭회한 말로서는 ‘심정(心情)은 신실히, 표현(表現)은 공교(工巧)코자 한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그가 수신에서 문식을 귀히 여긴 증거인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완성된 사상과 문식 있는 언어, 성실한 심정과 공교한 표현은 문장작법에서 긴요한 법칙인 것이다.³⁾

2) 『文心雕龍』原道 第一: 文之爲德也大矣. 與天地並生者何哉. 夫玄黃色雜方圓體分日月疊璧 以垂麗天之象 山川煥綺 以鋪理地之形 此蓋道之文也. 仰觀吐曜 俯察含章 高卑定位 故兩儀既生矣. 惟人參之 性靈所鍾 是謂三才 爲五行之秀 實天地之心 心生而言立 言立而文明 自然之道也. 유협 저, 최신희 역주, 『문심조룡』, 현암사, 1975. 번역문은 최신희 역주를 인용하였음.

3) 『文心雕龍』徵聖 第二: 夫作者曰聖 述者曰明. 陶鑄性情 功在上哲. 夫子文章 可得

유희의 문장관은 『논어』의 ‘술이부작’을 그대로 계승한 것으로, 작(作)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성인이며, 명철(明哲)은 단지 술(述)을 할 뿐이다. 그럼에도 천지만물에는 마음(본성)이 있고, 그 마음은 ‘언립(言立)’과 그에 맞는 ‘문명(文明, 밝은 글)’을 낳는다. 곧 ‘뜻(志足)’과 ‘언문(言文)’, ‘심정(情心)’과 ‘표현(辭巧)’ 등이 문장 작법의 법칙(金科)이 되는 것이다.

신라시대 최고운이 『문심조룡』을 읽었다는 기록이 있고, 조선시대 학자들의 책에서도 『문심조룡』이 자주 등장하듯이, 이 책은 우리나라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 책이다⁴⁾. 이 책은 조선 시대 계곡 장유의 『계곡선생집』 권7 ‘서(序)’,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 경사편, 다산 정약용의 『여유당전서』 논어고금주(論語古今注) 권1 등에서 언급되며, 이덕무의 『청장관전서』 권53 ‘이목구심서(耳目口心書)’와 같이, 글을 쓰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일깨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청장관전서』 권53, 이목구심서(耳目口心書)⁵⁾

『문심조룡(文心雕龍)』에 “몸은 다른 시대에 태어났지만, 뜻을 도(道)와 함

而聞 則聖人之情 見乎文辭矣. 先王聖化 布在方冊 夫子風采 溢於格言. (中略) 褒美子產則云 言以足志 文以足言 泛論君子則云 情欲信 辭欲巧 此修身貴文之徵也. 然則志足而言文 情信而辭巧 迺含章之王牒 秉文之金科矣.

4) 『孤雲集』 卷2, ‘無染和尚碑銘’. 上曰: “弟子不佞, 少好屬文, 嘗覽劉勰【音叶, 梁武帝時人, 推爲昭明太子所重. 著《文心雕龍》五十卷.】《文心》, 有語云: ‘滯有守無, 徒銳偏解. 欲求真源, 其般若之絕境.’ 則境之絕者或可聞乎?” 大師對曰: “境既絕矣, 理亦無矣. 斯印也默行爾”. 박현규(2009)에서는 이 비명을 ‘낭혜화상비’라고 불렀다.

5) 『靑莊館全書』 卷53, 耳目口心書. 文心雕龍曰. 身與時舛. 志共道申. 標心於萬古之上. 而透懷於千載之下. 金石靡矣. 聲其銷乎. 余則以爲窮人多著書而窮之又窮者. 書亦不傳. 然而其所著嘉惠後人. 得遇知音. 則窮中有通者也. 若或長受後世之唾罵. 則此天下之至窮也. 然則著書不傳者. 窮之又窮之中. 又有通焉者也. 又曰. 宇宙綿邈. 黎獻紛縻. 拔萃出類. 智術而已. 歲月飄忽. 性靈不居. 騰聲飛實. 制作而已. 余則以爲雖幸而傳數千年. 以天地之大季論之. 不過蚊雷之度碧紗幬耳. 번역문은 민족문화추진회(1982), 『국역청장관전서』(민문고)를 옮김.

깨 펴서 마음을 만고(萬古)의 옛 시대에 세우고 회포를 천재(千載) 후대(後代)에 전한다면, 금석(金石)이 부스러진다한들 그 소리가 사라질쏘냐.”라고 했다. 나는 궁(窮)한 사람이 글을 많이 저술하나 지나치게 궁한 자는 글도 전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책이 전해지지 않더라도, 저술한 것이 뒷사람에게 혜택을 입혀서 글 뜻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난다면 궁한 속에서도 통(通)함이 있는 자이지만, 만약 후세로부터 칩 빼고 욕하는 것을 당한다면 이는 천하에서 제일 궁한 자이다. 그렇다면 저서(著書)가 전하지 않는 자는 궁하고 또 궁한 속에서도 통함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또 이르기를, “우주(宇宙)가 생겨난 때가 이득히 멀고 인물이 많이 나왔지만 무리에서 뛰어난 것은 지술(智術)일 뿐이고, 세월이 덧없어서 성령(性靈)이 오래 있지 못하니, 명성(名聲)을 높이고 뜻을 발양(發揚)함은 제작(製作)일 뿐이다.” 했다. 내가 다행히 수천 년 전함을 얻더라도 천지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논한다면, 문뢰(蚊雷) 모기가 떼 지어 요란한 소리를 내는 것이 벽사(碧紗) 푸른 빛깔의 깃의 휘장을 스쳐가는 데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문심조룡』의 글에 대한 태도는 ‘뜻을 함께하여 도를 신칙하는 것(志共道申)’이라고 할 수 있다. ‘금석이 부스러지더라도 소리는 남아 있다’는 말이나 ‘책이 전해지지 않더라도 후세에 뜻을 아는 자(知音)를 만난다면 궁핍한 상황에서도 통하는 것’, ‘후세로부터 매도를 당하는 이는 천하에서 제일 궁한 자’라는 말은 글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계하는 말로 해석된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조선시대 학자들이 『문심조룡』으로부터 얻은 글쓰기에 대한 관념은 경서(經書)를 최고의 문체로 인식하고 함부로 글을 창작하지 않으며, 도(道)에 합당한 저술(著述)을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2. 한문체의 형성과 특징

『문심조룡』 제3 ‘종경(宗經)’은 문장의 법칙이 『역경』, 『상서』, 『시경』, 『예기』, 『춘추』 등에서 비롯되었으며, 일로부터 각각의 한문 문체가 발달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

『문장의 법칙과 6요소』⁶⁾

이리하여 논·설·사·서(論說辭序) 등과 같은 양식은 『역경(易經)』에 의해 창시(創始)되고, 조·책·장·주(詔策章奏)는 『상서(商書)』에서 발원(發源)하고, 부·송·가·찬(賦訟歌讚)은 『시경(詩經)』이 그 기본을 확립하고, 명·퇴·잡·축(銘誄箴祝)은 『예기(禮記)』가 그 발단이 되며, 기·전·맹·격(記傳盟檄)은 『춘추(春秋)』가 그 근본을 이루고 있다. 이들은 모두가 지극히 높은 것으로 규범(規範)을 세우고 무한히 넓은 데까지 문장의 영역을 확장하였다. 그러므로 제자백가가 아무리 분방(奔放)히 뛰고 날아도 결국은 경서의 경내를 맴도는 데 불과한 것이다. 경서에 의해서 문장과 법식을 제정하고, 전아한 풍격을 참작해서 조사(措辭)를 풍부히 한다면 그것은 마치 동산(銅山)에서 구리를 제련하고 바다에서 소금을 정제하는 것처럼 무진장한 보고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장이 능히 ‘경서’를 으뜸으로 하여 성공한 것이라면, 그 본질에는 여섯 가지 요소가 담겨 있다. 첫째는 정(情)이 깊어서 거짓이 없는 것, 둘째는 청순하여 섞임이 없는 풍격, 셋째는 사실이 신실(信實)해서 허위가 없는 것, 넷째는 뜻이 정직해서 왜곡이 없는 것, 다섯째는 간결하여 무잡(蕪雜)하지 않은 것, 여섯째 화려하면서도 음탕하지 않은 것이다.

6) 『文心雕龍』宗經 第三. 宗經 第三: (中略) 故 論說辭序則 易統其首 詔策章奏則書發其源 賦訟譔讚則詩立基本 銘誄箴祝則禮總其端 紀傳銘檄則春秋爲根 並窮高以樹表 極遠以啓疆 所以百家騰躍 終入環內者也 若稟經以製式 酌雅以富言 是仰山而鑄銅 煮海而爲鹽也. 故文能宗經 體有六義 一則情深而不詭 二則風俗而不雜 三則事信而不誕 四則義直而不回 五則體約而不蕪 六則文麗而不淫.

‘종경(宗經)’이란 사마천이 『사기』를 저술할 때 경서의 체제를 따랐음을 논증한 것으로, 유협은 ‘원도(原道, 글의 원리)’와 ‘징성(徵聖, 성인의 말씀을 검증함)’ 다음에 ‘종경’을 두었다. 즉 글에 ‘종경’이 있고, 문체에 여섯 가지 조건이 있다는 것은 비록 한문 문장 양식이 글 쓰는 상황이나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을지라도, 글쓰기가 경서를 모범으로 하였으며, 정심불괘(情深不詭), 풍속부잡(風俗不雜), 사신불탄(事信不誕), 의직불회(義直不回), 체약불무(體約不蕪), 문려불음(文麗不淫) 등의 도적적 글쓰기를 지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종경’에 언급된 한문 문체의 특징과 기능은 제6 ‘명시(明詩)’부터 제25 ‘서기(書記)’에 비교적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심조룡』에 나타난 한문 문체의 기능⁷⁾

- ㉠. 권6~7의 명시(明詩)와 악부(樂府): 악부(樂府)는 가사(歌詞)로 풍속 교화 기능을 중시함: 시(詩), 악부(樂府), 가사(歌詞)
- ㉡. 권8 전부(詮賦): 풍간(諷諫)의 존중(尊重)이 없으면 권계(勸戒)에 도움을 주지 못함: 부(賦)
- ㉢. 권9 송찬(頌讚): 교화에 의해 일국을 잠재우는 것을 ‘風’, 풍속으로 세상을 바르게 하는 것을 ‘雅’, 용태를 신명에게 고하는 것을 ‘頌’이라고 함: 송(頌)·찬(讚)
- ㉣. 권10 축맹(祝盟): 신의 강림을 구할 때 진실성에 힘써야 하며, 중대한 사태를 서술하고 충의 효심을 장려하여 심력을 다하도록 해야 함: 제례문(祭禮文)·서약문(誓約文)
- ㉤. 권11 명감(銘箴): 감(箴)은 관직에 대해 낭송(朗誦)된 것이며, 명(銘)은 기물(器物)에 기입된 것으로, 명칭과 작용은 다르나 교계(教戒)의 역할을 함: 교계문(教戒文)으로서 명(銘), 감(箴)

7) 『文心雕龍』 권6부터 권25까지를 대상으로 정리한 것임.

- 바. 권12 뇌비(誄碑): 뇌(誄)는 사자(死者)의 언행을 선택하여 기록하고, 전기의 본질을 밝으며, 송(頌)의 수사법을 사용하여 영예를 서술하고, 애도의 말로 끝맺는 양식이며, 비(碑)는 역사가적 재능에 의거하여 숭고하고 위대한 공덕을 밝히는 양식임: 뇌문(誄文)과 비문(碑文)
- 사. 권13 애조(哀弔): 시대에 따라 애도의 방식이 다르나 비통성(悲痛性)을 중심으로 하고, 애석(愛惜)을 다해야 함. 망인의 미덕을 높여 오류를 억제하고 포품을 신중히 음미하며 애도 가운데 바른 것이 구비되어야 함: 애도사(哀悼辭)와 조문(弔文)
- 오. 권14 잡문(雜文): 대체(對體), 칠체(七體), 연주체(連珠體) 등의 소품(小品)으로 문학성을 중시함
- 자. 권15 해은(諧隱): 해학과 풍자의 귀착점은 언사가 엉터리일지라도 바른 주장을 하는 데 있으며, 은어는 암시적으로, 그 내용은 계획적이어야 하며 표현은 순간적이어야 함
- 차. 권16 사전(史傳): 사서(史書)는 황제(皇帝)에서 기원하여 주공·공자에서 양식을 완성했다. 역대(歷代)가 여기서 편찬되고 선악을 망라하였음. 사서의 제작은 수많은 자료에 정통하여 미래에 진실을 전하고 일국 성쇠의 실상을 밝혀 흥폐를 은감(殷鑑)케 하는 데 있음: 사(史)·전(傳)·기(記)
- 카. 권17 제자(諸子): 사상사들의 학설에 대한 평가
- 타. 권18 논설(論說): 논(論)은 시비를 정확히 판별하고, 현상을 규명하며, 무형한 것을 추구하고, 단단한 것을 뚫어 통로를 구하는데 목표가 있으며, 주(注)는 논체(論體)를 풀어 잡문으로 만든 양식, 설(說)은 사람을 희열하게 하고 시대의 이익과 도의적 정당성을 얻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는 양식임: 의(議), 설(說), 전(傳), 주(注), 찬(贊), 평(評), 서(序), 인(引)
- 티. 권19 조책(詔策): 조책은 계획이나 책서 등으로 군주나 제후의 교화와 책락을 위한 글을 의미함. 군주의 말은 신비성이 존중되어야 하며, 제후는 그것을 모범으로 삼음. 이와 같은 글은 위엄, 자애, 엄정 등이 필요함: 조칙(詔勅), 관료에 대한 조서와 모든 백성에 대한 칙서, 포고(布告), 책서(策書), 제서(制書), 계칙(戒勅), 지방 기관의 계고)

- ㄷ. 권20 격이(檄移): 이쪽의 좋은 점과 명덕을 서술하고 상대방의 가혹 잔학함 서술하여 천명 시운과 인간사의 작용 등을 밝혀 적는 글: 격문(檄文), 이(移)
- ㄸ. 권21 봉선(封禪): 성인사상(聖人思想)의 골격(骨格)을 세우고 넓고 풍부하게 언어를 선택하며 내용을 정제하고 표현을 청렴하게 함: 봉선문(封禪文)
- ㄹ. 권23 장표(章表): 상주(上奏)를 나타내는 글로 언어는 바르고 명석하게, 주장은 장대 웅혼하며, 경건하게, 절도를 지키고 조리를 세워야 함: 장(章: 謝恩을 나타냄), 주(奏: 죄악을 고발함), 표(表: 요청을 진정함), 의(議: 異議를 제술함)
- ㄺ. 권23 진계(奏啓): 상소문(上疏文), 주(奏), 계(啓), 탄핵문(彈劾文)
- ㄻ. 권24 의대(議對): 어떤 대상에 대한 의논을 중심으로 하는 글로, 의(議)는 정치에 참획하고 명실상부한 것이 요구됨: 의대문(議對文)
- ㄼ. 권25 서기(書記): 서(書)와 (記)는 실용적인 글로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분화되는데 24개의 양식이 존재함.

『문심조룡』의 한문 문체는 글을 쓰는 목적과 상황을 전제로 한 것으로, 매우 세분되어 있다. 이 가운데 권15의 해은(諧隱)과 권17의 제자(諸子)는 해학과 풍자 또는 은어를 사용하는 방법, 제자백가에 대한 평가 태도 등을 설명한 것이므로 특정 형식의 문장 체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권14의 잡문, 권18의 논설, 권25의 서기 등은 글을 쓰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체제를 산출한다. 예를 들어 서기체의 경우 통합 양식으로 ‘보(譜), 적(籍), 부(簿), 록(錄)’, 방술(方術)로 ‘의방(醫方), 역법(術數), 점성(占星), 식(式), 복서(卜筮), 법률·병사로 ‘율·령(律令), 법·제(法制), 정무·상거래로 ‘부(符), 계(契), 권(券), 소(疏)’, 관리(官吏)의 업무를 나타내는 ‘관(關), 자(刺), 해(解), 첩(牒)’, 민의 상달과 관련된 ‘장(狀), 렬(列), 사(辭), 언(諺)’ 등이 세분된다. 이처럼 다양하게 분화한 문장 체제일지라

도 『문심조룡』에 지향하는 글쓰기는 진실성과 순수성, 풍속 교화 등의 도덕적 내용을 전제로 한다. 이는 지식인을 중심으로 한 글쓰기의 전형적 태도이며,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조선 시대 선비들에게도 지속적으로 계승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차원에서 규범적이고 도덕적인 글쓰기를 벗어나 기능적 차원에서 글쓰기를 바라본 것은 근대 이후의 일이다. 예를 들어 최재학(1909)에서 제시한 ‘논(論: 理論, 政論, 經論, 史論, 文論, 諷論, 愚論, 假論)’, ‘설(說)’, ‘전(傳: 史傳, 家傳, 托傳, 假傳, 變轉)’, ‘기(記: 遊記, 事記, 戰記, 雜記)’, ‘서(序)’, ‘발(跋)’, ‘축사(祝辭)’, ‘문(文)’, ‘서(書)’, ‘찬(贊)’, ‘송(頌)’, ‘명(銘)’ 등의 문체나, 이각중(1911)에서 제시한 ‘과문 육체(科文六體: 詩, 賦, 表, 策, 論, 疑義)’, ‘변(辨), 해(解), 석의(釋義), 설(說), 서(序), 인(引), 기(記), 명(銘), 전(傳), 송(頌), 찬(贊), 제명(題名), 상서(上書), 표(表), 주소(奏疏), 잠(箴), 비문(碑文), 묘지(墓誌), 제문(祭文), 조장(弔狀), 서고(誓誥), 제(制), 원(原), 격(檄)’ 등은 각각의 문체가 지닌 특징을 기능적 차원으로 설명하고자 한 경향이 두드러진다. 이는 최재학(1909), 이각중(1911) 등에서 ‘실용(實用)’을 강조한 것과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이각중(1911)에서는 실용상 필요한 문체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⁸⁾

「第一章 文體」

수에 右의 各種 文體에 通하여 注意를 要할 事項이 如左하니, 一. 文體는 思想에 適應케 合을 要하느니 文體를 爲하야 思想을 變改 又는 妨害 合은 決코 不可하니라. 二. 文體는 讀者의 了解力에 適應케 合을 要하느니 故로 可及의 易解한 文體를 取하되 或 其不可已한 境遇라도 決코 文體를 完全히

8) 김경남, 「근대적 글쓰기 교재의 문장 체제론에 대한 연구」, 『한민족문화연구』 37, 한민족문화학회, 2011, pp.177-198.

호기 爲호야 了解를 缺케 호는 事 | 有키 不可호니라. 三. 自家 獨創의 文体를 得호을 務호지니 他人의 文体 又は 既成호은 文体만 模倣 奪襲호은 또호는 必要호는 事 | 아니라. 恒常 名家의 文을 多讀호며 各種의 文体에 精通호야 其長處를 學호고 能作能改호야 練熟을 積호면 自然히 一種 自家 獨創의 文体를 見호지니 此 | 所謂 文章의 成家 | 라. 作文이 此에 至호야 始乃完全호는 者 | 라 홀지니라. 「번역」 지금 오른편의 각종 문체마다 모두 주의해야 할 사항이 왼편과 같으니, 1) 문체는 사상(생각)에 적합하도록 해야 하니, 문체를 위해 생각을 고치거나 방해하는 것은 결코 가능하지 않다. 2) 문체는 독자가 이해하는 능력에 적응할 수 있어야 하므로 가급적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체를 취하되 혹은 불가피한 경우에도 결코 문체를 완전히 하기 위해 이해하는 일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 3) 자기 스스로 창안한 문체를 터득하는 데 힘써야 하니, 다른 사람의 문체 또는 기존에 있는 문체만 모방하고 베끼는 것은 필요한 일이 아니다. 항상 명가의 문장을 많이 읽고 각종 문체에 정통하여 그 장점을 배우고 능히 짓고 고쳐 숙련을 쌓아가면 자연스럽게 자기 스스로 독창적 문체를 발견하게 될 것이니 이는 이른바 문장을 이룬 사람이다. 작문이 이에 이르러야 완전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르면 문체는 ‘생각(사상)을 표현하는 수단’일 뿐이며, 필자의 입장에서 독자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더욱이 기성의 문체를 단순 모방하지 말고 독창적인 문체를 발견해야 한다는 주장은 『문심조류』 이후 경서 모방의 전통적 문체관과는 확연히 다른 문체관을 보이고 있음을 증명한다. 즉 도덕적 작문관에서 기능적·창조적 작문관으로 변화해 가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이는 글쓰기가 소수의 지식인 중심의 활동에서 근대 이후 대중적인 의사소통 수단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Ⅲ. 지식 지형과 문체 점변(文體漸變)

1. 문체와 지식 지형

문체는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달라지며, 이를 반영한 문체는 특정 시대와 사회의 지식 지형을 나타낸다.⁹⁾ 조선 초기 과문에 대한 인식도 마찬가지이다. 단종 즉위년(1452) 6월 21일자 집현전 상서 ‘조진흥학지사(條陳興學之事)’의 일부를 살펴보자.

『집현전 상서 조진흥학지사』¹⁰⁾

1. 지금 과거의 문체(文體)가 크게 무너졌는데, 의의(疑義)가 더욱 심하니 중국 조정의 격례(格例)에 의하여 문체를 새롭게 하소서. 1. 지금 성균관에서 한 달에 세 번을 제술(製述)하는데, 교관이 훈회(訓誨)로 여가가 없어 과차(科次)에 나아가지 못하니, 이 때문에 제생들이 작문하는 데에 더욱 정신을 들이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제술한 이튿날에 의례 교훈하는 것을 정지하고, 꼭 과차에 나아가서 부지런히 고교(考校)를 가하여 깎고 지워세[批抹] 품등

9) 박갑수 편저, 『국어 문체론』, (주) 대한교과서, 1994. 이 책에서 박영순은 ‘문체론의 본질’에서 문체의 유형을 사회 문체와 개인 문체로 나누었다. 사회 문체와 관련한 문체는 사회 계층, 제도, 지역, 시대 등을 망라하고 있는데, 계층적 차원이나 개인적 차원으로 설정한 운문체, 산문체 등은 장르 차원의 문체론에 해당하며, 제도나 시대, 지역 등의 특색과 관련한 문체 유형은 스타일을 반영한 유형이다. 또한 이석주의 ‘문체와 시대’는 시대와 사회에 따른 문체 변화의 특성을 논한 논문이다.

10) 『端宗實錄』卷1, 端宗 卽位年(1452), 6.21. 集賢殿上書, 條陳興學之事. (中略) 一, 今科學文體大壞, 疑義尤甚, 依中朝格例, 以新文體. 一, 今成均館一月三度製述, 而教官訓誨無暇, 不卽科次, 因此諸生作文, 益不致意. 自今, 於製述翼日, 例停教訓, 須卽科次, 勤加考校, 批抹評品, 引進諸生, 諄諄面諭, 使知作文之法. 一, 詩賦, 亦儒者之事, 不可視爲詞章, 而不知之習也. 竊觀, 隋、唐以來, 用詞賦取士, 我國進士試, 亦此意也, 向因一二舉子之冒濫, 遂廢不復, 乞復立進士試, 使幼學之士, 講學之餘, 兼習詩賦. 但除十韻詩, 悉用古賦, 加以古律詩中一篇. 번역문은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에서 옮김.

을 평하여, 제생을 이끌어 내어 친절하게 면대하여 일리서 작문하는 법을 알게 할 것입니다. 1. 시부(詩賦)가 또한 유자(儒者)의 일이니 사장(詞章)이라 하여 익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옥이 보건대 수나라·당나라 이래로 사부(詞賦)를 써서 선비를 취하였는데, 우리나라의 진사시가 또한 이 뜻입니다. 지난번에 한 두 응시자가 속이고 잘못됨으로 인하여 드디어 폐지하고 회복하지 않았는데, 빌건대 다시 진사시를 세워 유학(幼學)의 선비로 하여금 강학하는 여가에 겸하여 사부(詞賦)를 익히되, 다만 십운시(十韻詩)를 제하고 모두 고부를 쓰고 고율시(古律詩) 중의 한 편(篇)을 더하소서.

이 기사는 조선 초기 문체에 대한 관심이 ‘과거 문체(科擧文體)’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과거 문체는 제술(製述)을 기본으로 하며, 문과 초시의 5경 4서의 ‘의의(疑義, 의심 가는 부분에 대한 풀이)’, ‘논(論)’ 등을 저술하는 능력을 평가하였다.¹¹⁾ 비록 역과(譯科)나 음양과(陰陽科), 율과(律科) 등과 같이 기술 관련 과거에서는 제술 대신 ‘강서(講書)나 ‘역어(譯語)’ 능력 등을 평가하였으나, 문관이 되기 위해서는 과거 문체를 익히는 일이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과거 문체는 조선 초기 지식 표현의 정형화된 글쓰기 양식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 과문은 『문심조룡』에서 확인한 것처럼, 경서를 근간으로 하여 생성된 문체로, 규범과 도덕을 지향하는 문체였다. 과문의 특징은 세종 12년(1430) 8월 22일자 황현(黃鉉) 등의 상소 기사에도 잘 나타난다.

11) 『經國大典』卷3, ‘禮典’에서는 문과 초시의 제술(製述)로 “初場 五經四書疑義 或論中二篇, 中場 賦頌銘箴記中一篇 表箋中一篇 終場 對策一篇. 明經試 四書五經館漢城鄉試則上項九書通略以上者 取之 覆試則九書中七通二略者取之 殿試則製述等 第三十人內取之.

『황현 등이 경학 공부의 부흥책을 상소하다』¹²⁾

당(唐)·우(虞) 때에 인재(人才)가 풍성(豐盛)하였던 것은 그 배운 바가 진실성이 있었기 때문이요, 한(漢)·당(唐) 때에 인재가 고대(古代)와 같지 못했던 것은 그 배운 바가 진실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물의 이치를 깊이 연구하여 지식을 한껏 넓히고 마음속에 발생하는 생각을 성실하게 가져, 마음을 진실무위(眞實無僞)하게 바로잡고, 또 일신을 닦아 기른 나머지에 본체(本體)가 서고, 한 가정을 정제(整齊)하고는 나라를 다스리고, 온 천하(天下)를 고루 다스리는 데 공효(功效)가 행하여지는 것입니다. 배운 것이 그 진실성이 없으면 문예(文藝)에는 비록 교묘(巧妙)할지라도, 생각과 마음을 성실히 하고 바로 갖는 데 무슨 보익(補益)을 주며, 문외(文義)의 해설에 비록 밝다 하더라도 나라와 천하를 다스리는 데 무슨 도움을 주겠습니까. 공경히 생각하옵건대, 우리 전하(殿下)께서 천성(天性)이 총명하신 데다가 학문에 밝으시고 또 넓으시며, 과거(科擧)를 실시하시고 성리학(性理學)을 숭상하시니, 위로는 왕궁(王宮)으로부터 아래의 시골까지 한 지방도 배우지 않는 곳이 없고, 한 사람도 가르치지 않는 바가 없으니, 이는 학문의 본체가 이미 서고 학문의 공효가 이미 행하는 것으로서, 비록 도당씨(陶唐氏)·유우씨(有虞氏)의 진실을 바탕으로 한 학문이라 할지라도 이보다 더할 수가 없을

12) 『世宗實錄』卷49, 世宗 12年(1430) 8月 22日. 行成均大司成黃鉉上疏曰: 唐、虞人材之所以盛者, 由其所學之有其實也, 漢、唐人才之不古若者, 由其所學之無其實也. 故體立於格致誠正修之餘用, 行於齊治平之際. 學無其實, 則文藝雖工, 於誠正乎何補? 訓誥雖明, 於治平乎何與焉? 恭惟我殿下, 天性聰明, 聖學緝熙, 設科擧、崇理學, 上自王宮, 下至閭巷, 無一地非學, 無一人不教. 聖學之體既立, 聖學之用亦行, 雖唐、虞之實學, 無以加矣. 然自文科初場, 罷講論、試疑義之後, 凡入國學者, 徒慕虛名, 不務實學, 雖強受學, 而退省其私, 則經書之冊, 束之几案, 講讀之聲, 未之或聞. 惟事雕篆之文, 而古今人士所製, 切於科文者, 悉籍而佩之, 畫誦夜思, 手不停披, 雖同儕之所製, 苟或見容於人, 則盡記藏之. 疑義之文、表策之辭, 不本諸經, 蹈襲抄集, 欲其徼倖於文衡者, 非獨子弟也, 朝之公卿, 家之父兄, 亦皆以此望於子弟也. (雖) 肯苦心窮經, 留意於希聖希天之學, 而內以立其體, 外以行其用乎? 此非徒無益於學者之一身, 誠有負於盛朝教養之美意也. 번역문은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에서 옮김.

것입니다. 그러하오나 문과 초장(文科初場)에 강론(講論)을 폐지하고 의의(疑義)를 시험한 뒤로는 국학(國學)에 들어오는 자들이 한갓 헛된 이름만을 사모하고 진실한 학문을 힘쓰지 않고 있으며 역지로 강의를 받기는 하오나, 물러나와 그 집에서 하는 것을 살펴본다면 경서(經書)의 책들은 책상 위에 팽개쳐 두고 강독(講讀)하는 소리조차 들을 수 없고 오직 사부(詞賦)의 글만을 일삼아, 고급 인사들이 지은 것으로 과문(科文)에 적절한 것이면 다 베껴 차고 다니면서 밤낮으로 외고 생각하며 열람의 손길을 멈추지 않고, 비록 같은 연배(年輩)가 지은 것이라도 혹 사람들에게 인정 받은 것이 있으면 역시 다 기록해 간직하는 형편입니다. 의의(疑義)와 표문(表文)·책문(策文)의 글들은 경서에 근거를 두지 않고 초집(抄集)한 데에 따르고, 고시관에게 요행을 바라는 풍습은 자제(子弟)들뿐만 아니라 조정의 공경(公卿)과 가정의 부형(父兄)들까지도, 이렇게 하기를 자제들한테 바라고 있으니, 누가 즐겨 속을 썩여 가며 경서를 연구하여 성인(聖人) 같이 되기를 바라고, 하늘 같이 높고 크기를 바라는 학문에 유의하여 안으로 본체를 세우고 밖으로 공효를 행하려고 하겠습니까. 이는 배우는 자의 일신에만 무익(無益)할 뿐 아니라, 실로 성대(盛代)의 아름다운 교육의 근본 의의(義意)에도 위배되는 것입니다.

황현 등의 상소에 나타난 것처럼, 당시 과문(科文)은 문예의 기교보다 “사물의 이치를 연구하고, 지식을 넓히고, 마음속에 발생하는 생각을 성실하게 가지며, 제가치평(齊治平)”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2. 문체 점변(文體漸變)과 지식 지형 변화

시대와 사회에 따라 문체가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나는 문체 논쟁은 지식 지형의 점진적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예로 인조 23년(1645) 8월 3일자 대제학 이식의 계문(啓文)을 살펴볼 수 있다.

『이식 계문』¹³⁾

대제학 이식이 아뢰기를, “『춘추(春秋)』란 경서는 성왕(聖王)이 세상을 다스리는 대법(大法)인데, 요즘 선비들이 『춘추』는 폐하여 전혀 강(講)하지 않고 『주역(周易)』의 문장을 표절(剽竊)하는 데는 민첩하니, 그것은 우선 강경에 응시했을 때, 『주역』은 배획(倍畫, 점수 부여 방식의 하나)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춘추』에 배획을 옮겨준다면 강하는 자가 반드시 많아질 것이니, 해조로 하여금 의논하여 시행하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또 아뢰기를, “요즘의 문체(文體)는 규정을 따르지 않아서 부(賦)에는 운(韻)을 달지 않고, 표(表)에는 염(簾, 글자의 고저를 맞추는 것)이 틀린 것이 많으니, 앞으로는 격식에 어긋난 것은 내쳐야겠습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사육문(四六文)에 있어서는 글 뜻(文意)으로 대(對)를 하지 않고 글자 모양(字樣)으로 대를 해서 문리(文理)를 이루지 못하니, 앞으로는 이런 작품을 절대로 금해야겠습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노(老)·장(莊)의 글은 본디 나라에서 금하는데도, 요즘에는 큰 단락의 대의를 그대로 전용(專用)하고 있으니, 이런 작품은 일체 내쳐버리소서.” 하니, 상이 대신에게 의논하라고 명하였다.

이 상소에 따르면 부(賦)에는 운(韻)이 따라야 하고, 표(表)는 염(簾, 자음의 높낮이를 맞추는 방법)을 지켜야 한다. 이 상소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점차 부와 표의 규칙이 문란해지고, 나라에서 금했던 노장(老莊)의 글이 자연스럽게 번지고 있음을 비판한 것이다. 그러나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른 점진적 문체 변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인다. 특히 지식 지형이 변화하는 시점에서 문체 변화는 더 급격하게 이루어진다. 이는 실록의 문

13) 『仁祖實錄』卷46, 仁祖23年(1645).8.3. 壬午/大提學李植啓曰: “《春秋》一經, 乃聖王經世之大法, 而近來士子專廢不講, 《易》文則捷於剽竊, 且以應講之倍劃也. 今移倍劃於《春秋》, 則講之者必多, 請令該曹議施.” 上從之. 又言: “近來文體, 不遵程式, 賦不押韻, 表多違簾, 此後違格者黜.” 又言: “四六, 不以文意爲對, 以字樣爲對, 不成文理, 此後絕禁如此之作.” 又言: “莊、老之文, 自有國禁, 而近來專用大段文義, 請一切黜去.” 上命大臣議之. 번역문은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에서 옮김.

체 관련 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실록에는 ‘문체(文體)’와 관련된 기사가 대략 117건이 실려 있는데,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조선왕조실록 문체 관련 기사 검색 결과』

태종	세종	단종	세조	성종	연산군	중종	명종	선조
1	2	1	2	2	1	12	1	8
광해군	인조	숙종	경종	영조	정조	순조	고종	계
4	4	20	1	12	44	1	1	117

이 표에 나타난 것처럼 문체 논쟁은 숙종, 영조, 정조 시대에 급격히 증가한다. 이는 이 시기가 지식 지형 변화의 중요한 시점임을 의미하는데, 특히 정조 시대의 문체 논쟁은 전통적인 과문(科文)의 변화뿐만 아니라 서학(西學)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다음을 살펴보자.

『정조 시대의 문체 점변 사례』¹⁴⁾

우의정 채제공이 아뢰기를, “이른바 서학(西學)의 학설이 성행하고 있으므로 신이 『천주실의(天主實義)』라는 책을 구해 보았더니, 바로 이마두(利瑪竇)

14) 『正祖實錄』卷26, 正祖 12年(1788).8.3. ○壬辰/召見大臣、備局有司堂上。右議政蔡濟恭曰: “所謂西學, 其說盛行, 臣窮覓見《天主實義》爲名冊子, 卽利瑪竇初頭問答, 而無非傷敗彝倫之說, 殆甚於楊·墨之亂道, 以其有天堂地獄之說, 故村氓之無知覺者, 易致愚惑。然其禁之之道, 亦難矣” 上曰: “予意則使吾道大明, 正學丕闡, 則如此邪說, 可以自起自滅, 而人其人火其書, 則可矣。(中略) 上曰: “此說, 熾盛於乙巳間, 金華鎮爲秋判時, 略加搜治。此事付諸有司之臣, 可矣。若作爲大事, 推上朝廷, 則豈不屑越乎? 大抵挾左道而惑衆聽, 奚特西學而已? 中國則有陸學、王學、佛道、老道之流, 何嘗設禁者? 究其本則專由於儒生不讀書之致也。近來文體日益駁雜, 且有貪看小說之弊, 流入於西學者也。我朝文章, 立國以來, 皆眞積力久, 從六經、四子中來, 雖有岐異之時, 要之, 是經學文章之士也。近日則經學掃地, 而爲士者, 不過尋摘章句, 爲科宦之計, 外此則又有此等異學邪說, 豈非大可憂歎處乎? 卿等往復領相, 須思培養變化之方。至於所謂西學, 則只付京外有司之臣, 善爲禁戢也。 번역문은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에서 옮김.

가 애초에 문답한 것으로, 인륜을 손상하고 파괴하는 설이 아님이 없어 양(楊)·묵(墨)이 도리를 어지럽히는 것보다 자못 심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천당 지옥에 관한 설이 있기 때문에 지각없는 촌 백성들이 쉽게 현혹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금지하는 방도 또한 어렵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나의 생각에는 우리 도[吾道]와 정학(正學)을 크게 천명한다면 이런 사설(邪說)은 일어났다가도 저절로 없어질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것을 믿는 자들을 정상적인 사람으로 전환시키고 그 책을 불살라 버린다면 금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하니, (중략) 상이 이르기를, “이들의 설이 을사 년간에 크게 성행하였는데, 김화진(金華鎭)이 형조 판서로 있을 때에 대략 수색해 다스렸으니, 이 일은 유사(有司)의 신하에게 맡기는 것이 옳을 것이다. 만약 큰 사건으로 만들어 조정으로 밀어 올린다면 어찌 방만하게 되어버리지 않겠는가. 대저 좌도(左道)를 가지고 사람들의 귀를 현혹시키는 것이 어찌 서학(西學)이겠는가. 중국의 경우 육학(陸學)·왕학(王學), 불도(佛道)·노도(老道)의 유가 있었지만 언제 금령을 설치한 적이 있었는가. 그 근본을 따져보면 오로지 유생들이 글을 읽지 않은 데서 말미암은 일일 뿐이다. 근래 문체(文體)가 날로 더욱 난잡해지고 또 소설을 탐독하는 폐단이 있으니, 이 점이 바로 서학에 빠져드는 원인이다. 우리 나라의 문장은 나라를 세운 이후로 모두 육경(六經)과 사자(四子)에 오랫동안 노력을 쏟은 속에서 나왔으므로, 비록 길을 달리한 때가 있었지만 요컨대 모두 경학(經學) 문장의 선비들이었다. 그런데 근일에는 경학이 쓸은 듯이 없어져서 선비리는 자들이 장구(章句)에 좋은 글귀를 따다가 과거를 계획이나 하는 데 지나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또 이러한 이학(異學)의 사설(邪說)에 빠지고 있으니 어찌 크게 탄식할 만한 일이 아닌가. 경들은 영상에게 왕복(往復)하여 모름지기 사기(士氣)를 배양(培養)해서 폐습을 변화시킬 방도를 생각하라. 그리고 이른바 서학에 대해서는 서울과 지방의 유사의 신하에게만 맡겨 잘 금지하도록 하라.” 하였다.

이 기사는 정조 연간 서학의 융성과 그에 따른 문체 변화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 기사에서는 앞선 시대의 과거 문체 점변에 대한 논쟁과는 달리,

경학(經學)을 경시하고, 서학(西學)과 같은 이학(異學)이 날로 퍼지며, 이로 인해 사설(邪說)에 빠지고, 소설을 탐독하는 폐단이 생겨나는 사회 현상을 비판한 것이다. 여기서 언급한 『천주실의』를 비롯한 서학서는 조선 시대의 지식 체계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지식인 셈이다. 즉 지식 지형의 변화가 문체의 변화를 유도하며, 이로부터 신규 지식의 갈등이 생겨나는 셈이다. 이는 지식 표현의 수단인 문체 변화가 지식 지형의 변화로부터 유래함을 의미한다. 조선 후기 지식 지형의 변화는 이 시기 지식인들의 문체 관 또는 작문관의 변화로 이어진다.

IV. 결론

이 글은 유협(劉勰)의 『문심조룡』과 조선왕조실록의 ‘문체(文體)’ 관련 논쟁을 중심으로, 지식 지형의 변화가 글쓰기에 미친 영향을 규명하는 데 목표를 둔 글이다. 문체란 문장의 체재(體裁)를 의미하는 말로, 근대의 작문 이론이 등장하기 전부터 널리 쓰였던 용어이다. 문체 논쟁은 지식인의 작문관뿐만 아니라 지식 지형의 변화를 반영하는 대표적인 표지이다. 이 글에서 논의한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글쓰기 태도는 특정 시대나 사회의 세계관을 반영한다. 동양의 전통적인 문체는 유협(劉勰)의 『문심조룡』에서 언급한 것처럼 경사서(經史書)의 체재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체는 술이부작(述而不作)의 전통이 강한 중국에서 진실하고 도덕적인 글이 갖추어야 할 특징으로 인식되어 왔는데, 『문심조룡』에서는 이를 ‘원도(原道)’라고 표현한다. 이 책의 ‘종경제3(宗經 第三)’에서는 전통적인 문체가 경사서에서 비롯되었음을 밝히고, 각각의 문체가 갖추어야 할 조건을 설명하고 있다.

둘째, 지식 지형의 변화에 따라 문체가 점차 변화하며, 그에 대한 논쟁이 확산된다. 조선 시대의 문체 논쟁은 주로 과문(科文)을 대상으로 전개되었는데, 과문에 쓰이는 각각의 문체가 지켜야 할 조건을 따르지 않는 현상을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처럼 문체 논쟁이 순수한 글, 도덕적인 글이 변질되어 감을 비판하는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음은 지식 지형의 변화와 문체 논쟁이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정조 연간 서학이 만연됨에 따라 문체상의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고 있음을 비판한 논쟁을 통해, 문체가 지식 표현의 수단이며, 이에 따라 지식 지형의 변화가 문체의 변화를 유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문체는 본질적으로 글의 특징을 의미한다. 글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 변화하며, 필자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따라 변화한다. 이는 문체가 사상과 의식 체계에 따라 형성된 지식 지형을 반영함을 의미하며, 그것이 궁극적으로 글의 형식과 내용, 문체를 결정하는 각종 수사적 표현이나 언어 요소에 작용하는 중심 요인이 된다.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천착해야 할 과제이다.

【참고문헌】

1. 자료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sillok.history.go.kr).

민족문화추진회, 『국역 청장관전서』, 민문고.

『경국대전』, 아세아문화사 영인본.

2. 논저

김경남, 「근대적 글쓰기 교재의 문장 체재론에 대한 연구」, 『한민족문화연구』 37, 한민족문화학회, 2011, pp.177-198.

김민나, 「문심조룡 정위편(正緯)편 논술의 목적과 의의 고찰」, 『중국어문학지』 47, 중국어문학회, 2004, pp.65-101.

김원중, 「문심조룡의 수사론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4.

김윤희, 「조선 후기 사행가사의 세계 인식과 문학적 특질」,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0.

김은미, 「조선 초기 누정기의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0.

박갑수 편저, 『국어 문체론』, 대한교과서(주), 1994.

박재경, 「조선시대 책문(策文)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4.

박현규, 「한국에서의 문심조룡 유전 양상-신라~조선시대를 중심으로」, 『중국어문학』 53, 영남중국어문학회, 2009, pp.169-192.

배득렬, 「문심조룡 대거개념(對舉概念) 연구」, 북경사범대학 박사학위 논문, 1997.

백진우, 「조선 후기 사론(史論) 산문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1.

서복관 저, 윤호진 역, 『한문 문체론 연구』, 태학사, 2000.

서용준, 「문심조룡 송찬(頌讚) 편의 분석을 통한 유희의 송(頌)과 찬(讚)에 대한 인식 고찰」, 『중국문학』 67, 한국중국어문학회, 2011, pp.1-25.

송주영, 「조선 초기 대명 관계와 이문정책(吏文政策) 연구」,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4.

안세현, 「조선 전기 누정기(樓亭記)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9.

유 협, 최신희 역, 『문심조룡』, 현암사, 1975.

이각중, 『실용작문법』, 유일서관, 1911.

이상복, 「문심조룡 수사론 연구」, 중국문화대학 박사학위논문, 1996.

- 이상욱, 『조선 과문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5.
- 전명용, 『문심조룡의 ‘도·성·경(道聖經)’ 일체론 연구』, 한국외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9.
- 정 민, 『고전 문장론과 연암 박지원』, 태학사, 2010.
- 최영화, 『조선 후기 표해록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7.
- 최재학, 『실지응용작문법』, 휘문관, 1909.
- 최치원 지음, 이상현 옮김, 『고운집』, 한국고전번역원, 2016.
- 팽철호, 『문심조령 연구-그 사상과 이론의 체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2.
- 학군봉, 『조선시대 사대부의 장자 수용과 우언 글쓰기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1.
- 허 방, 『철종시대 연행록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6.

Abstract

A Study on the Attitude of Style Recognition in the Joseon Dynasty
according to the Changes in Knowledge Terrain

– Focusing on the gradual change in style(文體漸變) –

Kim, Kyung-nam

This article is aimed at identifying the influence of the changes in knowledge terrain on writing and focusing on the controversy related to the MUNSIMJORYONG(文心雕龍, written by Liu Xiaoping, 劉勰) and the JOSEONWANGJOSILROK(Joseon Dynasty Annals). Stylistics is a term used to describe the sentence structure. It was widely employed before the emergence of modern writing theory.

The traditional style of the Orient is said to have originated from the style of GYEONGSA (經史) as mentioned in the MUNSIMJORYONG. The style has been recognized as a characteristic of true and moral writings in China, which has a tradition of predicament. In this book, the traditional style is derived from the slant books and explains the conditions that each style should possess.

The controversy of the style in the Joseon Dynasty was mainly based on the GWAMUN (科文, Management appointment examination) and criticized the fact that each style used in the passage does not follow the conditions meant to be followed. The fact that the stylistic controversy leads to a controversy that criticizes the feeling that moral writing is altered, signifies that the changes in the knowledge terrain are closely related to the stylistic controversy. Furthermore, it can be confirmed that the style is a means of knowledge expression through the controversy, which criticizes the rapid changes in the style due to the prevalence of the JEONGJO (正祖). Apparently, the changes in the knowledge topography lead to the changes in style.

Key Word : style, MUNSIMJORYONG, GWAMUN(Management appointment examination), knowledge terrain, style change

김경남

소속 :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HK연구교수

전자우편 : surhera@hanmail.net

이 논문은 2019년 1월 21일 투고되어
2019년 3월 10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9년 3월 11일 게재 확정됨.